

SKC, 리튬전지사업 별도법인으로 분할

SKC는 8월30일 이사회를 열어 리튬이온폴리머배터리(LIPB) 사업을 분리해 SK모바일에너지(가칭)를 설립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SKC는 회사 분할결정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10월13일 개최할 예정이며 11월18일 분할등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SKC 관계자는 “2차전지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LIPB 사업부문을 따로 떼어내 별도법인으로 만들기로 했으며, 신설법인에 대한 지분은 100% SKC가 보유하게 되고 자회사의 대표이사과 임직원 배치 등은 앞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5/08/31>